의외로 많은 지게차 사고, 생명 앗아가는 주범

고용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보니

광주·전남 중대재해 3건 모두 초래
부딪힘·끼임·떨어짐 사고 잇따라
관습적 무면허 운전 등 '안전 사각'
전국 연평균 34명 사망·1144명 부상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 수 1위로 높은 편리함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를 유발시킨다는 오명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동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12개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집약해 분석해 공개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광주·전남에서만 총 3건의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언급됐다.

지난해 1월 9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금속 제조업에서 일하던 30대 필리핀 국적 A(34)씨가 같은 기숙사를 쓰던 베트남 출신 후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2017년 입사 이후 귀국을 불과 며칠 앞둔 상태였다.

사고가 난 현장은 300㎏이 넘는 원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원자재 입고·투입, 교체작업 과정에서 작업반경이 수시로 중복돼 작업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이 상존했다.

조사 결과 후 B씨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마찬가지로 무면허인 A씨에게 지게차 운전을 배운 사실이 확인됐다. 업무 특성상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업자의 무면허 운전을 묵인하고 있던 것으로, 해당 사업장 내 직원 145명 중 지게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이들은 11명에 불과했다. 또 사고 이후로도 B씨는 의무 이수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4월 20일에는 전남의 한 파이프 생산 공장에서 50대 C씨가 지게차와 거치대 사이에 있다가 머리가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업체 측은 작업자가 거치대 밖에 있다가 굴러오는 파이프를 멈추기 위해 거치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작업자가 거치대 내부에 들어가 지게차에 고임목을 놓아주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한 항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도 화물 검수를 하는 D씨가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8.4t의 컨테이너가 실려있던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다른 컨테이너의 검수를 위해 이동하던 D씨가 부딪힌 것이다.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만에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으로 작업지휘자의 부재를 지목했다. 사고 현장은 건물 3~4층 높이, 4.3t의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작업 지휘자나 신호수는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컨테이너 입고, 화물 검수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고, 지게차와 사람이 혼재돼 사고가 나기 쉬운 작업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지게차 이용률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국 지게차 대수는 2022년 21만 1977대, 2023년 21만 5804대, 2024년 21만 6774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등록된 굴착기(17만 5830대)와는 4만 대 넘게 차이가 났다.

최근 5년간(2017~2021)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4명 수준이며, 상해를 입은 경우도 연평균 1144명에 달했다.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 유형으로는 부딪힘, 끼임, 떨어짐, 물체 맞음, 깔림 및 뒤집힘 등 다양했다.

잦은 사고로 인해 지게차는 제조업 12대 기인물(재해가 일어난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건 또는 환경) 중 1위로 가장 위험한 장비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관리감독자가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심창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평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상급자들이 관리감독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과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게차에 대한 과도한 적재,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운전자와 작업자가 서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 관리감독자는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작업 중 중장비에 깔려 순천 60대 노동자 숨져

순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다.

2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순천시 별량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A(62)씨가 후진하는 25t 페이로더(중장비)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중장비 운전자 B(65)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

양동시장 점포 화재…설 대목 앞두고 한숨

단전에 냉동식품 취급 상인들 피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심야시간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변 상가로 번지지 않았지만, 시장 일대에 단전조치가 이뤄져 냉동·신선 식품 등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22일 광주서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내 한 점포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다른 점포로 옮겨붙진 않았으나, 점포내부를 태우고 인근 점포 천장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83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에서 불꽃(스파크)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라 전기전 요인(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장사도 잘 안 돼 힘든데 명절을 앞두고 화재까지 나니 속이 타들어간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탄 냄새가 진동했고, 피해 점포는 천장부터 벽까지 그을음이 남고 천장의 철근 구조물이 열기에 엿가락처럼 휘어졌으며 새까맣게 불탄 가구와 종이 박스, 집기류 등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등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

피해 점포 상인은 "설 대목을 앞두고 상품을 많이 쌓아뒀는데 전부 불타버렸다"며 "언제 가게가 다 정리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숨을 쉬었다.

양동시장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정모(50대)씨는 "불이 난 가게는 복구하는 동안 장사를 못 해 피해액이 나날이 불어날텐데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인근 가게 피해도 컸다. 불이 난 가게 바로 옆 점포 상인 정경님(여·79)씨는 "전기가 끊겨버려서 카드 결제도, 전화도, 냉장고도, 하다못해 형광등 조차 켜지지 않는다"며 "대목을 앞두고 비싼 버섯과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해뒀는데 다 상해서 버리게 생겼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답답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2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광주서부소방 제공〉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경찰대학장 출신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및 현장 상태에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사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200억대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 징역 3년 선고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2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2년 해당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500만원을 받았고, 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000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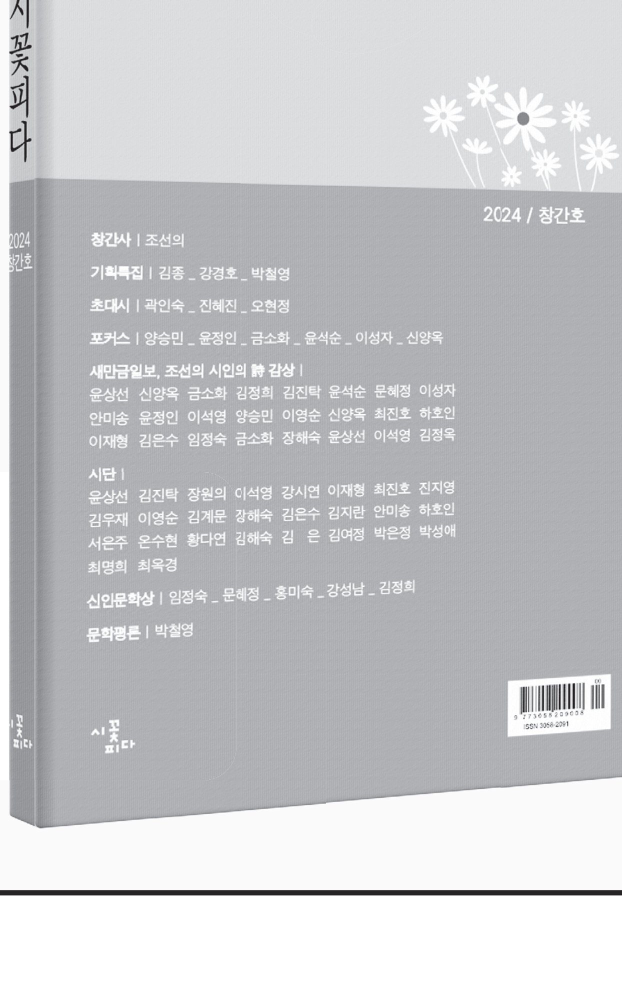
A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건설사 임원으로 일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이자 등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